'담마테인먼트' 새 포교 개념을 전하다

Dhammatainment

전법학술상 대상 프렘 출라롱콘대 교수 선정

불교 전법 · 교화의 학술적 담론과 실사구시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불광연구원의 전법학술상 올해 수상자에 태국 도심 포교 사례를 소개한 논문이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제6회 전법학술상 바라밀상(대상)에 프렘 소운사뭇 태국 출라롱콘대 부교수〈사진〉의 '태국의 성공적 포교 사례: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를 선정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외국인 학자가 전법학술상을 수상한 것은 까르마 렉쉬 쏘모 샌디에고주립대 교수(2회 전법상) 이후 두 번째다.

전법상에는 민태영 박사(동국대 박사)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를 통한 교법 이해 모형 연구', 전영숙 박사(연세대 중국연구원)의 '대만 불교계의 대륙불교 부흥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선정됐다.

프렘 교수의 수상 논문인 '태국의 성공적 포교 사례: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는 태국 도심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큰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포교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프렘 교수가 소개하는 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는 붓다다사 스님을 추모하는 일종의 기념관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아카이브 건립 프로젝트는 4년만인 2011년 개원됐다.

아카이브는 △란힌콩(Lan Hin Khong, 법문과 불교를 가르치는 공간) △닛판침롱(Nipphan chim long, 전시와 학회 공간) △빠띳차삼뭇밧(Patit Cha Samup Bat, 선 정원의 휴식공간) △붓다담(Buddhadham, 불교의식의 공간)을 비롯해 붓다다사 스님의 유물과 출판물, 기념품 판매 공간, 여러 회의장과 연구공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는 무료다.

프렘 교수는 아카이브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Dhamma)'와 즐거움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한 '담마테인먼트(Dhammatainment)' 개념에 따라 설계 · 운영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담마테인먼트'는 아카이브 담마포교팀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다양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강점이다.



붓다다사 아카이브 포교 소개
재미있는 불교 '담마테인먼트'
미디어 · 영화 · 음악 적극 이용
폰사진에 고승 법어 추가하는
'인스트라담' 개발… 젊은층 인기
12월 10일 시상식 · 발표회

프렘 교수는 "△담마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담마를 주제로 한 영화보기 △담마를 느낄 수 있는 음악 듣기 등이 끊임없이 열린다"면서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트라담(InstraDham)을 제작 · 배포했다. 사용자들은 휴대폰 저장 사진에 붓다다사 등 유명 스님들의 말씀을 추가하고 이를 SNS에 올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불교를 널리 알리는 도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붓다다사 스님이라는 브랜드와 열린 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 구성 인력, 누구에게나 개방된 프로그램들도 성공적 포교의 요인으로 주목했다.

그러면서 프렘 교수는 "이 센터는 일반 도시인들을 담마의 세계로 이끄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센터의 프로그램이 수준 낮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작은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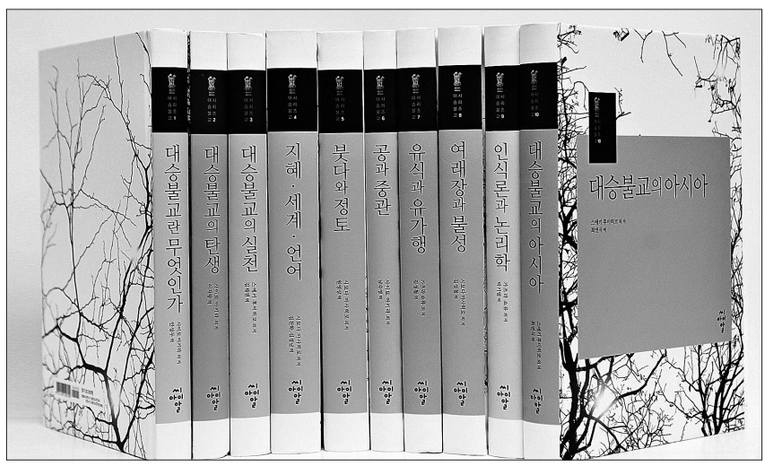
한편, 제6회 전법학술상 시상식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진행하며, 수상논문에 대한 발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바라밀상)과 300만원(전법상)이 수여되며, 불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법학연구〉 제13호에 논문이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 최신 연구 성과 '한눈에'

도서출판 씨아이알 '시리즈 대승불교' 완간

총 10권, 2년여 간 발간해
日 '강좌 대승불교' 후속편
안성두 등 학자 참여 · 번역
대승불교 종합개론서 '눈길'



도서출판 씨아이알이 최근 완간한 〈시리즈 대승불교〉의 전권. 2년여의 번역 끝에 완간됐다.

대승불교 관련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개설서 시리즈가 완간됐다.

도서출판 씨아이알은 최근 총 10권으로 구성된 〈시리즈 대승불교〉 출간 사업을 마무리했다. 2015년 8월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약 2년 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시리즈 대승불교〉는 1980년대 일본에서 간행됐던 〈강좌 대승불교〉의 후속편으로, 기존 〈강좌 대승불교〉를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거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시리즈 대승불교〉 집필에는 한국 불자들에게도 친숙한 스에키 후미히코부터 사이토 아키라, 가츠라 쇼류, 그레고리 쇼펜, 폴 해리슨 등 세계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학자로는 김천학 동국대 교수가 동참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계 불교학의 최신 연구 성과가 응축된 저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리즈 대승불교〉의 번역 사업은 김성태 도서출판 씨아이알 대표의 제안에 안성두 서울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등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8월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마지막인 〈대승불교의 아시아〉까지 순차적으로 번역과 발간이 이뤄졌다.

〈시리즈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전개와 특징을 주제별로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제1권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제2권 〈대승불교의 탄생〉, 제3권 〈대승불교의 실천〉은 대승불교의 특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대승불교의 기원 문제와 관련된 최근 서구학계의 여러 연구 성과를 반영한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

제4권 〈지혜 · 세계 · 언어 – 대승불전 I〉과 제5권 〈붓다와 정토 – 대승불전 II〉에서는 대승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여러 주요한 대승경전들의 핵심 사상을 보여준다. 제6권 〈공과 중관〉, 제7권 〈유식과 유가행〉, 제8권 〈여래장과 불성〉, 제9권 〈인식론과 논리학〉에서는 이들 대승경전이 불교사상가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 제10권 〈대승불교의 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와 다른 사상의 교류, 문헌 이외의 방법론의 가능성, 문학과 미술과의 관계 등 대승불교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연구들을 모았다.

이번 학술서 발간에 대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은 "일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국제학계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대승불교의 주요한 성격과 특질, 학계의 주요 관심사와 논쟁점 등에 대한 최신 성과와 연구동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8일 지정 공고



구미 대둔사 대웅전〈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구미 대둔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5호로 지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구미 대둔사는 구미시 옥성면의 복우산 동쪽 중턱에 남북으로 길게 대지를 조성해 자리한 사찰로 신라 눌지왕 30년(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후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해 다시 세웠고, 그 후 선조 39년(1606년)에 사명대사가 중건해 승군을 주둔시켰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 자리이며, 현재 자리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다.

대웅전은 1987년 수리공사에서 상량문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르면 광해군 6년(1614년)부터 순조 4년(1804년)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붕에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장식기와)가 다수 남아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대웅전은 경사지를 따라 조성하면서 앞쪽에 높은 장대석 석축과 계단을 두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이다.

이번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골굴사 석굴과 인도 석굴 상관 관계는

한국미술사연구소, 12월 9일 학술대회

경주 골굴사 석굴과 인도 석굴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9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골굴석굴과 인도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골굴석굴의 구조와 아잔타 19굴' 기조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주제 발표로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의 '콘다네 석굴과 골굴석굴',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칸헤리 석굴과 골굴석굴', 주수완 前 고려대 교수의 '카롤리 석굴과 골굴석굴', 이화수 충북대 교수의 '인도 전기 석굴사원 벽화의 구조와 보존'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신은미 인천이민사박물관장,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강삼혜 춘천박물관 학예사, 한경순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문명대 소장은 "골굴석굴은 자연동굴을 좀 더 다듬고 4, 5층의 전실 건물을 가구하여 승방굴을 만들고 있는 기이한 장관의 석굴"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석굴을 자세히 분석해 골굴석굴의 원형과 변화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 논한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8일 전문 연구자 세미나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견 스님이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 교육아사리 연구동향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상 스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탁상마이크
가격 : 185,000원
자체 소리 조절
주지스님 전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

제1회
혜원 시민포럼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을 표방하는 혜원불교교육원에서 새로운 전법의 목표를 설정하고 포교전략을 수립하고자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소주제문 발표 – 사회자: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제1발제 '전법(轉法)의 교학적 토대' – 조준호 교수(고려대 인문학 연구소)
제2발제 '전법사(轉法師)의 현실적 구현' – 백도수 교수(능인대학원 불교학과)
제3발제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 – 이도흠 교수(한양대 국문학과,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논평과 답변
제1논평과 답변 – 각성스님(혜원불교교육원 원장)
제2논평과 답변 – 목종스님(전법도량 의장)
제3논평과 답변 –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종합토론 – 열린 토론

일시 2017년 12월 10일(일) 오후 1시 ~ 3시 30분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교육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불교교육원
문의 혜원정사 051) 866-7771